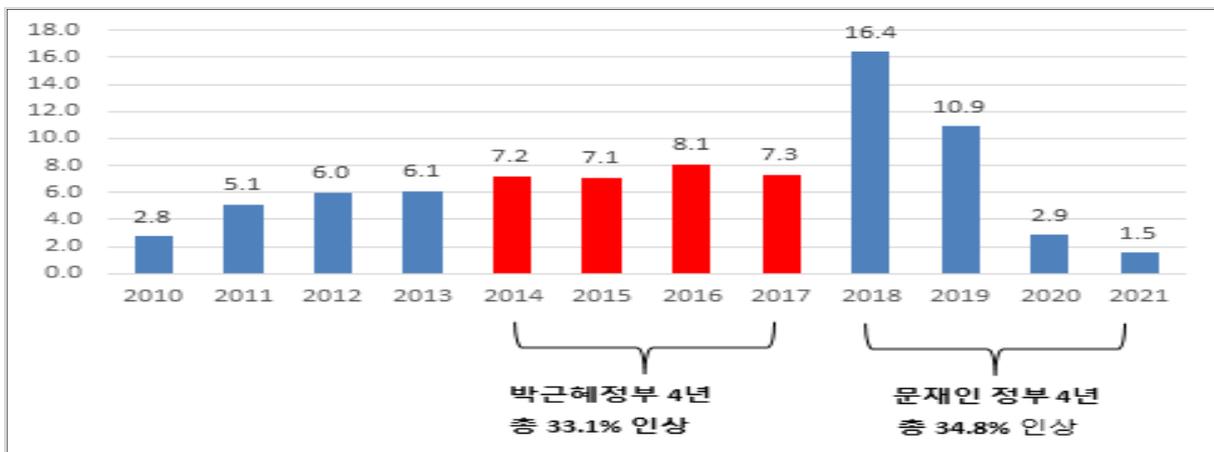


- 문 정권, 첫째 최저임금 대폭 올리고 부작용이 생기니 슬금슬금 줄이는 전형적 조삼모사
 - 16.4%(2018년) → 10.9%(2019년) → 2.9%(2020년) → 1.5%(2021년)
- 결국 박근혜 정부 때와 전체 기간 인상률은 거의 유사
 - 박 정부 4년(2014~2017) 총 33.1% /문 정부 4년(2018~2021) 총 34.8%
- 하지만 최저임금 미만율(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 비율) 문 정부 들어 급등
 - 이전 정부 대비 3.2% 포인트 상승
 - 박 정부 3년(2015~2017) 평균 12.7% vs. 문 정부 3년(2018~2020) 평균 15.9%
- 이는 우리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의미
 - 중소·영세기업의 경우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지불 능력 자체가 모자라는 경우가 대부분

문 정부, 4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총 34.8%... 박근혜 정부 4년간 33.1%와 유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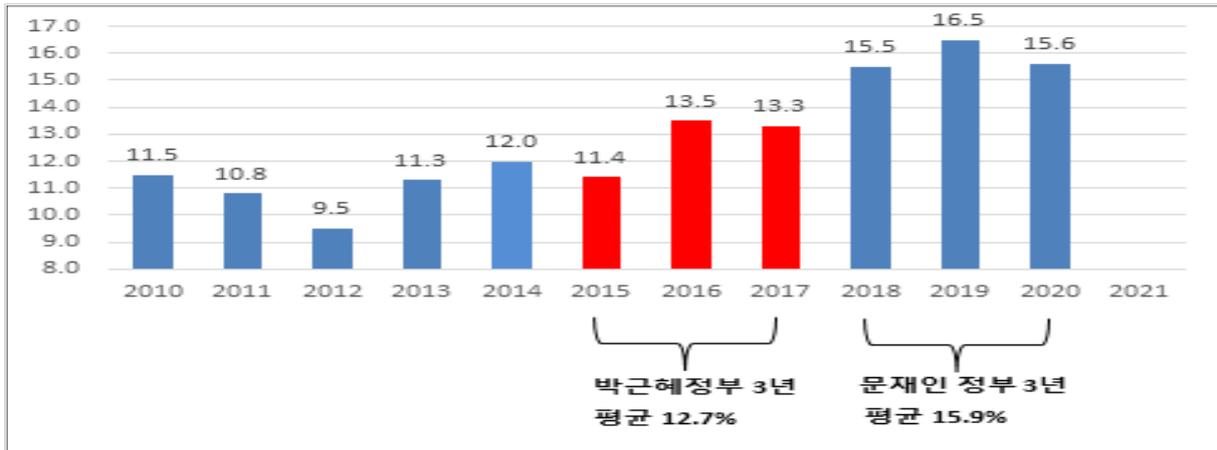
단위: %



자료: 최저임금위원회

하지만 문 정부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무려 3.2% 포인트 높아... 최저임금 급등의 부작용

단위: %



자료: 한국경영자총협회의, “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결과 및 시사점” 2021.3.8